

광주시 17개 기관과 교통사고 줄이기 나선다

올들어 교통사고 사망자 급증 경찰청·자치구 등과 협업회의 읍주 단속·이륜차 등 대책 추진

광주시가 광주지방경찰청, 5개 자치구, 교통안전공단, 버스·택시조합 등 교통관련 유관기관 17곳과 함께 교통사고 줄이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31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광주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이 2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올들어 사망자가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광주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은 지난 2018년 -36%, 2019년 -33.3%였고, 같은 기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제로

를 달성하면서 교통안전도시의 모범을 보였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 5월20일까지 광주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는 2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명에 비해 2배가 증가했다.

이 가운데 이륜차 오토바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8명이나 발생했고, 읍주운전으로 인해 9명이 사망했다. 반면,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오토바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단 한명도 없었다.

이 기간 중 읍주운전과 이륜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66%에 이르고, 코로나 19 확산 이후 10~20대 운전자 사망사고가 14명으로, 전체 사망사고의 5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최근 시청에서 교통사고 줄이기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읍주·과속 단속 강화와 이륜차 사고예방

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사망자 증가 원인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읍주단속 환경변화로 인한 느슨해진 교통안전의식 ▲거리 캠페인 및 교통안전 집합교육 일시 중지 ▲배달 수요증가로 인한 이륜차 사고 발생 증가 등을 짚었다.

협회의는 사고 예방 대응 방안으로 ▲경찰청의 비대면 읍주단속 강화 ▲시내 전광판, 기관별 홈페이지 홍보물 게시 ▲교통사고 예방영상 송출과 캠페인 전개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신문과 라디오,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6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방역 체제 전환에 따른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거리 캠페인을 유관 기관별 집중 실시하기로 했다.

이륜차 대상 사고 예방 대책으로는 ▲

사고지점 현수막 게시 ▲특별 영상 제작 배포 활용 ▲라이더 거점용 활용한 교통안전 교육 ▲법규위반 계도·단속 추진 ▲형광반사지 부착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이륜차 면허취득 절차 강화, 면허 갱신 시 안전교육 이수제 도입 등의 제도 개선을 위해 경찰청 등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박갑수 광주시 교통정책과장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며 교통 신호 지키기, 읍주·과속 안하기, 이륜차 안전도 착용 등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한 실정이다”며 “협업을 통해 교통사고 발생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북구 드론비행연습장 상시실기시험장 지정

전국 특·광역시 중 최초 매주 화·수요일 2차례 시험

전국 특·광역시 중 처음으로 광주시 북구에 드론자격증 상시실기시험장이 들어선다.

그동안 드론자격증 시험을 위해 전주와 순천 등 타 지역을 방문했던 지역민들의 불편이 해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1일 북구에 따르면 북구는 지난 28일 한국교통안전공단(TS)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북구 대촌동 '북구 드론비행연습장'을 '드론 국가자격증 상시실기시험장'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 첫 드론 실기시험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상시실기시험장 운영에 들어가며 매주 화·수요일 2차례 드론 실기시험이 치러진다.

확인한다.

지난해 광주·전남의 자격증 취득자는 2810명(전국 대비 20%)으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상시실기시험장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북구는 기존 7470㎡ 규모의 드론비행연습장을 1만㎡로 확대하고 실내교육장, 안전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해 상시실기시험장 지정을 준비했다.

드론 자격증 상시실기시험장은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북구를 포함해 전국에 총 10곳(광주 북구·순천·전북 전주·경기 안양·충남 청양·충북보은·강원 영월·경남 김해·경남 사천·경북영진)이 있다.

지난해 북구는 광주시 최초로 드론비행연습장을 개장하고 드론 무료 체험교실 운영, 드론 전문 기업·동호인 대상 비행장소 제공 등 드론 레저문화 확산에 기여해 왔다.

향후 북구는 드론비행연습장을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드론공원으로 지정받을 계획을 하고자 할 경우에 국가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자격증 시험은 필기·실기로 이뤄진다. 필기는 만 14세 이상 비행경력 20시간 이상인 자는 누구든지 응시 가능하다.

필기는 항공법규, 항공기상, 항공역학(비행이론), 비행운용 4과목에 정답률 70% 이상이면 합격한다.

실기시험에서는 ▲기체 및 조종자에 관한 사항 ▲기상·공역 및 비행장에 관한 사항 ▲일반직식 및 비상절차 등 ▲비행 전 점검 ▲지상활동(또는 이륙과 상승 또는 이륙동작) ▲공중조작(또는 비행동작) ▲착륙조작(또는 착륙동작) ▲비행 후 점검 등 ▲비상상황절차 및 비상절차 등을

실기시험에서는 ▲기체 및 조종자에 관한 사항 ▲기상·공역 및 비행장에 관한 사항 ▲일반직식 및 비상절차 등 ▲비행 전 점검 ▲지상활동(또는 이륙과 상승 또는 이륙동작) ▲공중조작(또는 비행동작) ▲착륙조작(또는 착륙동작) ▲비행 후 점검 등 ▲비상상황절차 및 비상절차 등을

실기시험에서는 ▲기체 및 조종자에 관한 사항 ▲기상·공역 및 비행장에 관한 사항 ▲일반직식 및 비상절차 등 ▲비행 전 점검 ▲지상활동(또는 이륙과 상승 또는 이륙동작) ▲공중조작(또는 비행동작) ▲착륙조작(또는 착륙동작) ▲비행 후 점검 등 ▲비상상황절차 및 비상절차 등을

실기시험에서는 ▲기체 및 조종자에 관한 사항 ▲기상·공역 및 비행장에 관한 사항 ▲일반직식 및 비상절차 등 ▲비행 전 점검 ▲지상활동(또는 이륙과 상승 또는 이륙동작) ▲공중조작(또는 비행동작) ▲착륙조작(또는 착륙동작) ▲비행 후 점검 등 ▲비상상황절차 및 비상절차 등을

실기시험에서는 ▲기체 및 조종자에 관한 사항 ▲기상·공역 및 비행장에 관한 사항 ▲일반직식 및 비상절차 등 ▲비행 전 점검 ▲지상활동(또는 이륙과 상승 또는 이륙동작) ▲공중조작(또는 비행동작) ▲착륙조작(또는 착륙동작) ▲비행 후 점검 등 ▲비상상황절차 및 비상절차 등을

광주일자리 온라인박람회 6월 8~21일 사이트 운영

광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채용시장을 활성화하고 지역 일자리창출을 위해 '광주일자리 온라인박람회'를 개최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광주일자리 온라인박람회'는 6월 8일부터 21일까지 인터넷 취업포털 사이트 잡코리아(job.jobkorea.co.kr)에서 운영된다.

이번 박람회는 광주시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광산업진흥회가 협업해 마련했다.

특히 광주를 비롯해 화순, 담양, 나주, 장성 등 인근 4개 시·군 소재 자동차·전자분야 기업과 우수·추천기업 등을 만날 수 있다.

우수기업은 광주시에서 지정된 명품강소기업 및 프리(PRE)-명품강소기업 등이 참여하며, 추천기업은 광주시 등이 추천한 근로자 복지 우수기업 등이 참여한다.

더불어 온라인 이력서, 취업가이드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이벤트판도 별도로 마련된다.

광주일자리 온라인 박람회는 전국 구직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구중천 광주시 일자리정책관은 "코로나19는 일자리시장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며 "향후 온라인 방식의 박람회를 확대 운영해 기업 채용인력 mismatch가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30일 오후 남구 광주시민회관 야외공연장에서 열린 '광주시민회관 청년창업공간' 개관식에 참석해 박미정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장 및 시의원, 청년창업자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민회관, 청년창업 공간으로 재탄생

교육장·공유 사무공간 들어서

광주 시민의 추억과 애환이 담긴 광주시민회관이 청년 창업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3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전남 광주시민회관 1층에서 광주시민회관 청년창업공간 개관식을 개최했다. <관련기사 22면>

1층에는 카페와 베이커리·꽃집 등 상업 시설이 자리하고, 2층에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등 각종 교육장과 전시장, 3층에는 청년 창업자를 위한 공유 사무공간이 마련됐다. 청년 창업자들은 시민회관에서 창업 활동과 함께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를 펼칠 수 있게 됐다.

광주시는 시민회관의 역사성을 살리고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려 전문가, 시민단체, 시의회, 언론이 참여하는 민간 협의체인 '시민추진협의회'와 '청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문화, 미디어, 커뮤니티 등 5개 분야에 19개 팀 33명의 청년창업자를 선발하고, 혁신 캠프를 열어 창업 콘텐츠 발굴과 사업 계획 마련 등을 위한 멘토링을 진행했다.

이용섭 시장은 "오랫동안 시민의 사랑방이자 소통 공간이었던 시민회관이 청년

들의 에너지가 모이는 공간으로 재탄생했다"며 "상상력과 창의력을 지닌 많은 젊은이가 창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창업 생태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1971년 개관한 광주시민회관은 연간 300여 건의 결혼식이 열리고 600석 규모의 만화영화 상영관을 갖추는 등 지역을 대표하는 시민 문화공간이었다.

하지만 구도심 침체 등으로 활용도가 낮아지면서 2010년 철거 위기를 겪고 리모델링을 거쳐 2014년 재개관했으나 마땅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시의회 제출

광주시 공기산업종합지원센터 건립 본격화

평동3차 산단에 내년 1월 착공

광주시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중인 공기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종합지원센터 건립이 본격화된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달 1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광주시의회 정례회에 공기산업 종합지원센터 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토지 매입을 위한 사전 절차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광주시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 광주 평동3차 산단단지 내 2만7564㎡ 부지를 93억원을 들여 매입하고 내년 1월부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센터는 평동3차 산단에 들어설 공기산

업 관련 기업과 연구·개발 기관의 입주 공간이다. 광주시는 정부-LG전자와 함께 2021년부터 2027년까지 7190억원(국비 4332억·시비 1250억·민자 1608억원)을 투입해 공기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11월 공기 산업 신제품 개발, 수출 지원, 공동 표준·인증체계 수립 등의 역할을 맡을 한국공기산업진흥회를 출범시켰다.

공기 산업은 공기 오염원의 측정·관리·저감·개선 산업을 통칭한 것으로, 정정기 등 정화장치, 에어컨·난방기 등 조화 장치를 만드는 것이다.

봄철마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공기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기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한 사람의 보험범죄 전국민의 경제부담

2016년 9월 30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날로 지능화되는 보험사기에 늘어나는 국민손실, 보험사기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보험사기, 반드시 적발됩니다.

MERITZ 메리츠화재 | 한화손해보험 | 롯데손해보험 | MG손해보험 | Heungkuk Fire & Marine Insurance | 삼성화재 | 현대해상 | KB손해보험 | 동부화재 | KOREAN | SGI서울보증 | AXA | AIG | NH농협손해보험